

2007장지아 네 번째 개인전

‘장지아가 펼치는 작은 서사’

신보슬(대안공간 루프 책임 큐레이터)

2006년 여름. 장지아가 찾아왔다.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생동한 질문을 가지고.

“여자는 서서 오줌 누면 안 돼?”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질문에 난 속으로 대답했다.

‘안 될 꺼야 없지만, 불편하지 않을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금지된 여자들의 서서 오줌 누기를 ‘오메르타’ 침묵의 계율이라 불렀고, 여기에서 그녀의 네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오줌. 여자들이 별거벗고 서서 오줌 누는 장면을 찍은 사진과 비디오.

아직도? 오줌, 여자, 누드, 여자들의 가학적 새디즘, 요부 등등. 이런 키워드들은 그 동안 장지아라는 작가의 작업에 늘 보여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식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녀는 이전에도 <예술가가 되기 위한 신체적 조건 2_모든 상황을 즐겨라>에서는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에 곳곳이 버티고 있는 작가 자신의 모습을 비디오로 담았는가 하면, 생리혈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꽃도장>에서는 현실과는 반대되는 권력구조의 성적 판타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Princess Said>에서는 새디스트인 요부가 자신의 남자 포로의 눈물을 모으는가 하면, 키스 중 남자의 입으로 들어간 침의 양과 눈물의 양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네 번째 프로젝트는 조금 달라졌다. 조금 덜 노골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법을 알게 된 것 같고, 조금 더 유연해졌고, 함축적이 되었다.

<오르메타: 침묵의 계율>은 장지아가 펼치는 작은 서사이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현실을 전복시키는 작은 서사. 여자가 서서 오줌을 누는 것이 왜 불경한 것이냐며 그녀는 여자들이 서서 오줌 누는 장면을 사진과 비디오 찍었다. 그리고 마치, ‘자 어때?’ 라는 듯 대형출력물로 관객을 에둘러 쏜다. 다른 한 편에서는 촬영장면을 찍은 비디오를 보여준다. 거기에는 세상에서 금기시된 서서 오줌 누는 장면을 찍으면서 오가는 농담, 킁킁거리는 웃음이 있다. 그 일탈의 현장에는 그들만의 유쾌함이 있다. 그런데 그들의 즐거움과 유쾌함이 오히려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를 불편하고 당혹스럽게 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제된 억압기제, 그 억압기제를 일탈하려는 반항에서 그치지 않고, ‘오줌’에 대해 다 써버리고 남은 일종의 ‘폐기물’에 대해 주목한다. 강철로 제작된 나무에 마치 크리스마스트리에 거는 화려한 방울들이라도 되는 양 투명플라스크를 걸어놓고, 그 안에 각종(?) 오줌들을 넣었다. 그리고 그 오줌들이 정화되어 떨어지면서 작은 씨앗의 싹을 틔우게 하였다. (<T-tree>)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여자들이 흔히 쓰는 빗, 가채와 같은 물건들에 소금을 고착시켰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오줌이 들어간 픽서로 인화했다. <Fixed Object>시리즈 그리고 나서는 천연덕스럽게 이 오브제들을 어항 안에 설치해 놓고는 마치 실험실 놀이라도 하듯 관객들에게 암모니아

2/24/2007

냄새 풀풀 나는 ‘오르메타의 바다’ 에 얼굴을 들이밀고, 그 안에서 이 오브제들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장면들을 새롭게 재구성하면서 놀아보라고 권한다.

그녀와 ‘오줌’ 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다. 찝통 같았던 여름에도, 낙엽이 지던 가을에도, 그리고 찬바람 부는 겨울까지 우리는 무수히 많은 오줌이야기를 했다. 그러는 사이 처음에는 입에 올리기 그리 편치만은 않았던 ‘오줌’ 이라는 단어가 슬슬 친근하고 익숙해졌다. 오줌이라는 배설물은 더러운 것이라고 규정지어버리던 우리의 편견도 조금은 느슨해졌다. 우리가 나눈 오줌 이야기에는 남녀의 불균형한 사회적인 권력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갔고, 이미 다 써버린 찌꺼기 배설물이 새싹을 틔울 수 있다는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가능성이 때론 우리를 흥분시키기도 했다.

그래서였을까? 요즘 장지아는 여전사라기보다 오히려 연금술사나 과학자가 된 것 같다. 이런저런 시약품을 섞어서 금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사처럼 이런저런 실험을 하는가 하면, 마치 과학자도 되는 듯 이런저런 드로잉들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녀가 했던 많은 이야기들 중 겨우 2% 정도가 이번 <오르메타: 침묵의 계율>에서 보여진 진 것 같다. 나머지 98%의 즐거운 상상이 더욱 기대된다.